

1990년대 영화문화운동 컬렉션

(2) 대전 씨네마떼끄 컬트



공개일: 2024. 12. 10.

영화문화운동

CULT

알려두기

1. 본문 중 특정 자료를 언급할 시 한국영상자료원 소장자료 관리번호를 병기하였습니다. 병기된 관리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와 한국영상자료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해제 글을 인용할 시 필자명 및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컬렉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와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시 예: 한국영상자료원, 『1990년대 영화문화운동 컬렉션 (2) 대전 씨네마떼끄 컬트』)

자료로 보는 대전 ‘씨네마떼끄 컬트’의 역사

박진희 (영화연구자)

1. 들어가며

대전 씨네마떼끄 컬트(이하 ‘컬트’)는 상영 공간을 갖춘 대전 최초의 민간 시네마테크로서, 1996년 6월에 활동을 시작해 199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운영됐다. 1992년 8월 씨앙씨에(서울)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천안 영화공방(대표 전진하)¹⁾으로부터 자원을 공수해 활동을 시작한 컬트는 설립 초반, 영화모임 열린빛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활동 시작 3개월 만에 운영 주체를 대전 기반의 전국구 관객모임 영화세상(대표 황규석, 이하 ‘영화세상’)으로 바꿔 운영을 이어갔다. 이미 활동한 지 3년이 넘었던 회지 활동 중심의 동호회 영화세상과 고정적인 상영 공간을 기반으로 한 컬트가 하나의 단체로 체질 개선을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컬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전국씨네마떼끄연합 설립에 기여했고, <킹덤 RIGET II>(라스 폰 트리에, 1997) 상영을 비롯한 크고 작은 대외 상영 이벤트를 진행하며 1990년대 중후반 대전 지역 시민들의 영화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2. 1990년대 지역 민간 시네마테크의 형성

1990년대 컬트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1990년대 지역 민간 시네마테크 형성의 역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지역에 형성된 민간 시네마테크는 크게 1991년 영화패로 출발한 광주의 굿펠라스, 1992년 8월 1일 자로 영업을 시작한 천안 영화공방, 1993년 1월 문을 연 부산의 씨네마떼끄 1/24 등 비교적 초기에 문을 연 곳과 씨네마드림(평택; 1995년 8월), 영화로 세상보기(광주; 1995년 9월), 온고을 영화터(전주; 1995년 11월), 씨네오딧세이(청주; 1995년 11월), 제7예술(대구; 1996년 4월), 씨네마떼끄 컬트(대전; 1996년 6월), 씨네토크(강릉; 1996년 8월), 일팔구오(대전; 1997년 중반) 등 1990년대 중후반에 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활동 기간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영화열망(부천), 영화만세(제주), 씨네오픈(제주), 키노&키드(군산), 시선(성남) 등이 있었다. 이들은 짧게는 1990년대 후반까지, 길게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활동을 지속했다.

1) 「사설 영화공간 2곳 등장」, 《한겨레신문》 1992.8.1.

1990년대 서울 외 지역 시네마테크 현황

단체명	지역	설립 시기
굿펠라스	광주	1991.
천안 영화공방	천안	1992.8.
씨네마떼끄 1/24	부산	1993.1.
씨네마드리밍	평택	1995.8.
영화로 세상보기	광주	1995.9.
온고을 영화터	전주	1995.11.
씨네오딧세이	청주	1995.11.
제7예술	대구	1996.4.
씨네마떼끄 컬트	대전	1996.6.
씨네토크	강릉	1996.8.
일팔구오	대전	1997. 중반
시선	성남	미상
씨네오피스	제주	미상
영화만세	제주	미상
영화열망	부천	미상
키노&키드	군산	미상

*상기 목록은 본문에 언급된 서울 외 지역 시네마테크에 한함.

마치 유행처럼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하나둘 생겨난 이들 지역 시네마테크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극장에서 상영하던 주류 영화와는 차별되는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해 토론하거나 공부하는 문화를 이끌며, 이러한 실천을 기록하여 회지로 발간하는 등 ‘시네 리터러시’²⁾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활동 방향과 방식 또한 유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비서울 지역의 척박한 영화문화, 즉 1970년대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4차 영화법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었던 한국의 곤궁한 영화문화와, 이에 더해 1986년 외화 수입 자유화가 허용된 이후에도 꽤 긴 시간 동안 작동했던 서울과의 배급 시차(서울보다 늦거나 혹은 아예 지방은 배제되는 식)라는 이중 제약의 맥락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다.

볼 수 없는 영화에 대한 갈망은 영화잡지 《스크린》(1984년 창간)이나 《로드쇼》(1989년 창간), 라디오방송 〈정은임의 FM영화음악〉(1992년 11월 2일 첫 방송)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부족하나마 세계에 존재하는 영화의 흐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소개되었던 영화잡지 속 영화들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정은임의 FM영화음악〉에서 끝도 없는 영화 지식을 설파했던 정성일 영화평론가는 그 영화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시네필들은 미지의 영화를 더욱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³⁾

지역 시네마테크의 언저리에는 ‘볼 수 없는 영화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영화에

2) 박은지, 「1980년대 부산의 관람 공간: 소극장 시대와 시네마테크의 출현」, 『아시아영화연구』 11권 1호, 2018.10., 233쪽.

3) 훗날 씨네마떼끄 컬트로 흡수된 관객모임 영화세상의 회지 《영화세상》 곳곳에서도 영화평론가 정성일이 끼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갈망'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 시네마테크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영화를 진지한 사유의 대상으로 보는 전형적인 시네필 관객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한편, 극장과 비디오 가게에서 인기를 끌었던 당대 상업영화(할리우드 영화나 홍콩영화)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영화 관련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 모인 영화 마니아들의 장소이기도 했다. 자신들이 하는 활동을 '관객운동'이나 '상영운동'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저 어디까지나 영화보기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유희적' 활동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 민간 시네마테크의 이러한 족출은 무엇보다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데에 힘입은 바 크다. 부산 씨네마떼끄 1/24의 설립자 김희진은 시네마테크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후 친구 셋이서 자금을 모아 공간을 빌리고 상영장비(빔 프로젝터)를 중고로 구입해 설치했으며, 영화공간 1895(서울)나 씨앙씨에(서울)에 일정 금액을 내고 비디오테이프를 사와서 공간을 구축했고, 지역 신문이나 생활정보지에 홍보해 단체를 알렸다고 말했다.⁴⁾ 이미 영화공간 1895나 영화사랑(서울), 씨앙씨에, 천안 영화공방, 문화학교 서울과 같은 민간 시네마테크 단체가 회원제를 기반으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영화 해설을 동반한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와 비슷한 방법론을 통해 시설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의 지역 안에서 두 개 이상의 시네마테크가 활동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다.

4) 한나리, 『2024년 한국영화사 기술채록연구시리즈 <주제사> 1990년대 전후 지역 영화문화와 네트워크 2권: 허현숙, 김희진』, 한국영상자료원, 2024 중 김희진의 기술 채록문 참고.

당시 지역 시네마테크는 설립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가 문제였다. 일정치 않은 작은 공간(심지어는 상영 공간을 따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았다)에서 회원들이 내는 소정의 회비나 자료 대여비, 가끔 시내의 다른 상영 공간을 빌려 대중을 상대로 상영 이벤트를 진행한 후 얻은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했지만 턱 없이 부족했고, 시네마테크의 운영자들은 따로 수익이 있지 않은 한 생활하기도 어려웠다. 운영이 안정적이었던 곳은 한 독지가의 의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문화학교 서울이나 평택시민아카데미 안에 소속돼 있던 씨네마드리밍(평택)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영화세상》 40호, 1997. 1.31.;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31_1 참조). 시네마테크에서 자기 전망을 찾지 못한 이들은 때마침 VHS의 시대가 가고 DVD 및 인터넷 다운로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졸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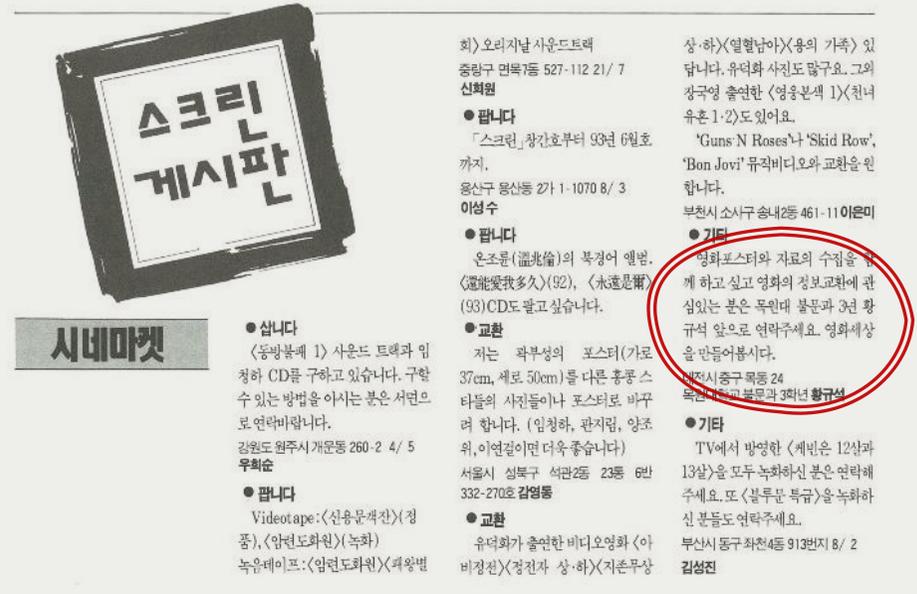
3. 회지 《영화세상》 발간과 관객모임 '영화세상' 결성 (1993년)

1993년은 볼 수 없는 영화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컸지만 할리우드의 최신 영화들이 큰 시차 없이 한국 극장가에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과의 시차가 존재하던 대전에서 전국구 모임인 '영화세상'이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은 모임을 결성한 황규석의 독특한 행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93년 당시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설 영상작가교육원에 다니고 있던 황규석은 수업 수강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로 올라갔고, 영상작가교육원에서 지급 받은 무료쿠폰을 이용해 코아아트홀에서 개봉한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 THE PIANO>

(1993)나 대한극장에서 개봉한 <쉰들러 리스트 SCHINDLER'S LIST>(스티븐 스피버그, 1994) 같은 영화를 봤다. 다양한 영화 자료를 모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1993년 여름엔 두 개의 여름영화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영화기획정보센터(당시 대표 임상수)가 주최한 제5회 여름영화캠프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젊은 영화인들의 모임인 '영화연구소 22세기 르네상스'가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진행한 첫 번째 '작은영화여행' 캠프에 참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영화기획정보센터는 신씨네, 시네포럼 등과 함께,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이었던 과거의 제작 태도를 벗어나 영화예술의 작품성과 상업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기획과 소재 발굴로 작품을 제작,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던, 즉 '전문기획집단'을 표방했던 회사였다. 한국영화기획정보센터는 1990년대 새로운 관객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990년대 초반부터 매년 여름, 200~300명을 초대하는 거대한 여름영화캠프를 진행했는데, 특히 1993년 캠프 때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객모임 씨네아이' 결성을 주도했다. 이들의 역할은 우리 영화 보기 실천, 관객 여론조사 및 모니터 활동, 관객 의식 개혁 및 친목 도모 등이었다.

사실상 황규석은 대전 지역 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서울의 영화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보낸 엽서 한 장이 영화잡지 《스크린》 1993년 8월호 「스크린 게시판」(302쪽)에 실렸다.

“영화 포스터와 자료의 수집을 함께하고 싶고 영화의 정보교환에 관심 있는 분은 목원대 불문과 3년 황규석 앞으로 연락주세요. 영화세상을 만들어봅시다.”



「스크린 게시판」에 실린 황규석의 편지, 《스크린》 통권 114호, 1993.8.1., 302쪽.

*강조는 인용자

이에 반응한 전국 각지에 사는 14명이 황규석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황규석은 이들에게 그동안 수집해온 영화 자료를 넣어 답장을 보냈고, 이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아까워 이를 모아 《영화세상》이라는 이름의 회지로 발간했다. 회지를 발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 모임인 관객모임 '영화세상'이 시작되었다. '관객모임'이라는 수식어는 황규석이 참가했던 '관객모임 씨네아이'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영화세상》 1호(1993.9.14.;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03_1)에 황규석은 이렇게 썼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소식지를 만들고 서로서로에게 연락하며 자료교환, 정보 교환을 하되 제 연락처가 소식지의 발신지이니 원 없이 원고와 소식 보내주시고 교통 정리를 할 수 있게 간이역쯤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같은 지역에 계신 분끼리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도 좋을 것 같군요. 이번 겨울엔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의 여행도 갔으면 합니다. (...)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들의 꾸밈없는 열정과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세상》 1호, 1993.9.14.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03_1)

회지는 회원들의 만류(?)로 한 달에 두 번이 아닌 한 번씩 발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애초의 목표처럼 마지막 호인 51호(1998년 5월 발행)가 나올 때까지 4년 8개월 동안 한 번의 누락도 없이 매월 말에 발행되었다. 회지 발행 1주년이 지날 때마다 1년치 회지를 모아 합본호도 만들어 판매했다. 회지는 당시 《한국일보》, 《경향신문》 같은 일간지나 《스크린》, 《로드쇼》와 같은 월간지, 《영화》, 《영화소식》 같은 영화진흥공사 발행 잡지, 《오늘예감》 같은 계간지에서 가져온 영화업계 관련 기사로 채워졌거나 영화 관련 행사에서 회원들이 확보한 자료 일부를 수록하는 식으로 구성됐고, 이 외에는 회원들의 영화 감상문이나 영화평으로 채워졌다.

《영화세상》에 실린 회원들의 글에는 사실 앞에서 언급한 ‘볼 수 없는 영화에 대한 갈망’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물론 당시 개방을 놓고 빈번히 논의되던 일본영화에 대해서는 그런 갈망이 읽히기도 한다(《영화세상》 28호, 1996.1.25.;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25_1 참조). 이를 제외하고, 사실 이들은 극장과 VHS라는 매체를 통해 한 꺼번에 너무 많이 도착한 영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빴다. 이 많은 영화들을 어떻

게 잘 소화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잘 (평론가처럼) 소개해볼 것인가. 이를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유학을 떠났고(영화세상 회원이었으며 훗날 감독이 된 이상우, 설경숙 등), 누군가는 새로운 단체를 결성해 활동을 지속했으며(영화세상/씨네마떼끄 컬트를 나간 후 ‘일팔구오’를 결성했던 현 대전씨네마테크 대표 강민구,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대전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및 총괄 프로그래머 민병훈 등), 누군가는 아예 다른 영토를 향해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회지에 참여했던 시간 동안 이들은 한국영화는 사실상 ‘미워도 다시한번’ 수준의 반복 아니냐며 마음껏 비판하기도 하고, <중경삼림 重慶森林>(왕가위, 1994)의 새로움을 마음껏 상찬하기도 하고, <나쁜 피 MAUVAIS SANG>(레오스 카락스, 1986) 개봉에 맞춰 내한한 레오스 카락스의 사인을 받았다며 자랑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그 시기 영화문화의 핵심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정서들을 거침없이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4. 대전 씨네마떼끄 컬트의 운영주체가 된 영화세상(1996년)

1993년 모임이 시작된 후 딱 3년째 되던 1996년 9월, 영화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영화세상 대표 황규석이 컬트의 총무로 들어가게 되고, 곧이어 영화세상이 컬트의 운영주체가 된 것이다. 컬트는 이보다 3개월 전인 1996년 6월 설립되었다. 대전에서 ‘컬트’라는 이름의 맥줏집을 경영하던 이석호가 맥줏집 한 칸에 영화를 보여주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지인인 전진하(천안 영화공방 대표)의 도움을 받아 대전 영화공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영화 상영 공간인 ‘씨네마떼끄 컬트’를 설립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황규석은 이를 부러워하면서도 컬트의 발전을 바라는 글을 영화세상의 또 다른 소식지 《씨네피아》에 남겼다.

“대전에 본격적인 씨네마떼끄 컬트가 생겼다. 영화 불모지 대전에 씨네마떼끄가 생겨서 한편으로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영화세상 사람들은 좀 씁쓸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저 정도의 공간과 자본이 확보되면 충분히 도전해 보려고 꿈꾸어왔던 사업이 다른 사람에 의해 시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세상은 선두에 선 특수한 입장의 영화모임이고 그 존재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우의를 나누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영화세상 소식지 《씨네피아》 4호, 1996.6.15. (소장 관리번호 JNK454_0004_1)

이석호의 대전 영화공방은 설립 이후 한 달짜리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연이어서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은 영화모임 ‘열린빛’과 함께했다. 그러나 설립 3개월 후, 구체적인 이행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컬트의 운영은 결국 황규석에게 맡겨졌다. 회지 중심의 전국구 동호회였던 ‘영화세상’과 고정된 공간 중심의 대전 지역 한정 시네마테크인 ‘컬트’라는,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두 단체가 오버 랍되는 과정에는 매끄럽게 정돈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로써 결국 컬트는 대전 유일의 시네마테크가 되었다.

때마침 이 무렵에는 제1회 인디포럼(1996년 5월)과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1996년 9

월)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흐름이 있었기에, 전국의 시네마테크 운영자들은 부산국제영화제 독립영화 부스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관객으로 참여했던 황규석은 이내 전국씨네마떼끄연합(이하 ‘전씨연’) 결성에도 대전 지역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5. ‘전국씨네마떼끄연합’ 결성 (1997년)

‘전씨연’은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영화 부스에 전국의 시네마테크 운영자들이 모여들며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구체적인 논의의 첫 모임이 1996년 11월 2일, 광주에서 ‘씨네마떼끄 연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성사되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컬트 대표 황규석과 회원 김재경의 생생한 후기는 《영화세상》 38호(1996.11.29.;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30_1)에 수록돼 있다.

이듬해인 1997년 1월 11일에는 전주에서 전씨연 준비위원회가 열렸다(《영화세상》 40호, 1997. 1.31.;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31_1 참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씨연의 의의와 위상, 체계에 관해 토론하고, 참여 단체 기준을 정하는 문제나 활동 계획, 홍보 방식,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단체의 활동 범위를 합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전씨연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연구, 배급을 어떻게 연계하고 협조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들은 전씨연 발족을 위해 회원 단체를 1997년

5) 1993년 9월부터 매월 말일 회원을 대상으로 발간한 《영화세상》과 별개로, 1996년 3월부터 매월 중순, 회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발간하기 시작한 소식지다.

2월까지 모집하고 3월에 대표자 회의를 거쳐 4월에 발족하는 일정을 합의했다.

계획대로 1997년 5월, 전씨연은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화려하게 발족했다. 현장에는 각 지역 시네마테크 일원들이 제작한 발간물이나 독립영화 관련 인쇄물이 전시되었고, 특별히 <판놀이 아리랑>(박광수·김홍준·황규덕·문원립, 1982)이 상영되기도 했다. 서울영상집단이나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같은 독립영화 창작자들을 포함해 독립영화계 종사자들이 출출동했다.⁶⁾ 이는 전씨연을 독립영화 배급에 있어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실제로 1998년에 열린 세 번째 인디포럼 때는 전씨연이 인디포럼의 공동주관처로 이름을 올리면서 인디포럼 상영작의 전국 순회상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씨연은 본연의 역할, 즉 각 지역 시네마테크의 열망을 담아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 대응한다는 역할에는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다. 각 지역 시네마테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는 어찌 보면 그 지역 시네마테크 운영자 개인의 운영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었기에 하나의 유의미한 문제로 수렴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각 지역 시네마테크가 직면한 문제를 수렴한 공동의 의제도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시네마테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음비법이나 공연법 위반과 같은 불법성

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상의 어려움과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었다. 전씨연과 같은 협의체 발족에 큰 기대를 걸었던 쪽은 아무래도 컬트 같은 지역 시네마테크들이었다. 지역 시네마테크의 입장에서 문화학교 서울은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한글자막 처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단연 가장 중요한 공급처였고, 서울에 이어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됐던 부산 씨네마떼끄 1/24도 중요한 공급처였다. 별도로 도쿄에 공급처를 가지고 있던 광주의 영화로 세상보기나 오사카에 공급처를 가지고 있던 평택의 씨네마드리밍 같은 곳도 있었지만, 각 지역 시네마테크가 처한 상황은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소장 자료를 공유하는 문제나 공동기금을 만들어 소스를 공유하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학교 서울은 전씨연을 독립영화 배급의 전진기지로 보는 측면이 더 컸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문화학교 서울을 포함해 전국의 민간 시네마테크의 전망을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문화학교 서울의 대표로서 전씨연에 관여했던 광용수 당시 문화학교 서울 사무국장은 본래 민간 시네마테크의 전망을 다소 어둡게 전망한 바 있었고(《씨네필》 1호, 1994. 4., 35~37쪽; 한국영상자료원, 「1990년대 영화문화운동 컬렉션 (1) 문화학교 서울」 소장 관리번호 JNK134_0004_1 참고), 전씨연 내에서도 각 시네마테크의 자구책을 강조하는 입장(《영화세상》 40호, 1997. 1.31., 6쪽;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31_1)을 일관적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 시네마테크들과는 애초에 전씨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전씨연은 출범 1년 만에 이름을 ‘전국씨네마떼끄협의회’로 바꾸어 재출범하게 되지만 멀티플렉스 극장이 출현하는 1998년을 기점으로 문화학교 서울도 필름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관람 환경이 크게 변해감에 따라 제 역할을 찾지 못하게 된다.

6) 2024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에 참여한 평택 씨네마드리밍 송정환은 전씨연 모임을 통해 <낮은 목소리2> 제작을 준비하던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의 변영주 감독을 알게 돼, 평택시민아카데미의 할머니 회원들과 상의하여 영화 제작비를 후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영민, 『2024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주제사> 1990년대 전후 지역 영화문화와 네트워크 1권: 정희섭, 박영정, 박상백, 송정환』, 한국영상자료원, 2024 참고.

6. 나오며: 대전 씨네마테크 컬트의 분화(1997~1998년)

황규석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영화세상이 컬트의 운영주체가 된 후, 컬트는 약 2년 2개월 정도 운영되었다. 시기상으로는 1996년 9월부터 1998년 10월까지이다. 그러나 영화세상이 컬트의 운영주체가 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컬트 안에서는 분화가 일어났다. 회지 《영화세상》 42호부터 47호(45호부터는 회지의 제명을 《씨네마테크 컬트》로 변경)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는 1997년 3월과 5월 사이에 일어난 일로, 기획팀의 민병훈, 스테디팀의 김재경을 비롯해 컬트 활동의 주축이 되었던 10여명의 회원이 컬트를 탈퇴해 강민구를 회장으로 한 ‘일팔구오’라는 모임을 꾸린 것이다. 강민구 역시 컬트의 회원이었으나 컬트 활동은 느슨했던 상태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컬트 대표 황규석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 1998년 8월에는 1년 반 정도 꾸려오던 대흥동 사무실을 비워주게 되면서 상영 공간 없이 활동을 이어가다가, 1998년 10월 ‘가을 재즈음악 영화제’라는 제목의 정기 영화 감상회를 마지막으로 컬트의 활동은 멈추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트가 남긴 족적은 뚜렷하다. 1997년 2월, 사무실을 대흥동으로 옮기며 어렵지만 본격적으로 자급자족 시스템을 마련했고, 1997년 하반기부터는 부산이나 광주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외 상영을 진행해 씨네마테크의 외연을 넓히려려고 했다. 그 일환에서 1997년 11월에 진행한 ‘시민을 위한 열린 영화제’는 600명에 가까운 관객을 불러모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전의 영상문화 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는 대전 지역 시민들의 영화문화

pen cinema

We love cinema.
Now, we want to talk about cinema.
Here, we want to make cinema.
But Taejon cinema-culture's background is not so good.
This open cinema festival is for Taejon citizen.
We do our best.

부에노스 아이레스 Happy Together / 29(토) 19시, 30(일) 15시
감독: 앙기타/출연: 앙기타, 앙수일/96분/인도/1995년/중국
태어난 호프일은 동중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옮겨 버린 채도 연인이었다. 그러나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중 딸다들이 일어나서 호프일은 떠나버린다. 버림받은 레이는 어떻게 살을 벌기 위해 배에서 일을 하는데...

중요 La Haine / 29(토) 13시, 30(일) 17시
감독: 아비우 카소비츠/출연: 앙기타, 앙수일/96분/프랑스
파리 근교에 사는 흑인, 흑인, 백인 세 친구는 경찰과는 항상 연인 지낸다. 그들은 밤에도 경찰과 전쟁을 벌인다. 왜냐하면 밤에 아사라는 16세 소년인 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던 중 구타당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리브 레터 Love Letter / 29(토) 17시, 30(일) 19시
감독: 에치이 슈우지/출연: 나가야마 히로/115분/일본/1995년/일본
후지이 에치오는 2년 전 산을 오르다 죽었다. 그에게는 왜냐하면 히로모라는 연인이 있었다. 그녀는 우도시후 후지이의 공학고 졸업에서 에치의 주소를 찾아내려 권지를 쓴다. 그녀의 답장이 날라오고... 결국 졸업시험 그 날짜에인과 동맹이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고 몇 주를 전지로 나눈다.

북경 녀석들 北京雜種 / 29(토) 15시, 30(일) 13시
감독: 장위안/일본/1992년/중국
북경을 가우 최건은 콘서트를 위해 한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는 연습장에서도 흥겨운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는 콘서트는 야외에서 관객들과 함께 열리게 될 예정이다. (북경 녀석들)에서는 공산주의 중국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특권을 향유하는 다룬다.

	29 (토)	30 (일)	
13시	중 오	북경 녀석들	무료
15시	북경 녀석들	부에노스 아이레스	
17시	리브 레터	중 오	
19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브 레터	

입 시: 1997년 11월 29일(토)~30일(일)
시 간: 오후 1시, 3시, 5시, 7시
장 소: (주)신원텔레콤 지하강당
주 회: 나무누 락 센터스 영화동호회 '영화혁명', 대전 씨네마테크 '컬트'
후 원: PC통신 나무누 락 '센터스', (주)교차로, 후간 '씨네21', '케이갤러리'
관 의: (042)254-0193, 나무누 락 센터스 go cinerev

신원텔레콤, 교차로, 씨네, ZOOM

‘시민을 위한 열린 영화제’ 포스터
(소장 관리번호 PZ000246_01)

수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황규석, 「대전의 영상문화 발전에 대한 설문조사와 결과보고서」, 《어디where》 1998년 2월호; 소장 관리번호 ZZ0001575_01 참조). 한편 1998년 4월에는 1997년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화제작이자 그해 연말 서울에서 개봉해 98년 상반기 내내 전국 순회상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킹덤〉의 대전 상영을 기획해, 역시 수백 명의 대전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영화세상과 컬트의 활동을 가감 없이 기록한 회지 《영화세상》(1997년 6월 30일 발간 45호부터는 《씨네마떼끄 컬트》로 제명 변경) 또한 1993년 9월부터 1998년 5월까지, 51개월의 발행 기간 동안 총 51권이 발행되며 좁게는 이 시기 영화를 좋아했던 청년들의 취향, 유행, 분위기를 기록하고, 넓게는 이 시기 한국의 다양한 영화계 이슈를 기록한 자료로서 매우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전씨연의 공식 소식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전씨연 발족까지의 디테일한 논의 과정을 담고 있기도 해, 향후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역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컬렉션 자료*

▶ 정기간행물

《영화세상》 1호, 영화세상, 1993. 9.14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03_1)

《영화세상》 28호, 영화세상, 1996. 1.25.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25_1)

《영화세상》 38호, 영화세상, 1996.11.29.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30_1)

《영화세상》 40호, 영화세상, 1997. 1.31. (소장 관리번호 JNK441_0031_1)

《씨네피아》 4호, 영화세상, 1996. 6.15. (소장 관리번호 JNK454_0004_1)

《씨네필》 1호, 문화학교 서울, 1994. 4. (한국영상자료원, 「1990년대 영화문화운동 컬렉션 (1) 문화학교 서울」 소장 관리번호 JNK134_0004_1)

▶ 기타자료

황규석, 「대전의 영상문화 발전에 대한 설문조사와 결과보고서」, 《어디where》 1998년 2월호. (소장 관리번호 ZZ0001575_01)

▶ 포스터

「시민을 위한 열린 영화제 포스터」 (소장 관리번호 PZ000246_01)

2. 구술채록문

공영민, 『2024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주제사> 1990년대 전후 지역 영화문화와 네트워크 1권: 정희섭, 박영정, 박상백, 송정환』, 한국영상자료원, 2024.

한나리, 『2024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주제사> 1990년대 전후 지역 영화문화와 네트워크 2권: 허현숙, 김희진』, 한국영상자료원, 2024.

3. 논문

박은지, 「1980년대 부산의 관람 공간: 소극장 시대와 시네마테크의 출현」, 『아시아영화연구』 11권 1호, 2018.10.

4. 정기간행물 (일·월간지)

《한겨레신문》 1992. 8. 1.

《스크린》 통권 114호, 1993. 8. 1.

* 본문에 언급된 컬렉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컬렉션 전체 자료 목록은 KMDb 내 해당 컬렉션 웹 페이지를 참조할 것.